

(Robert Vannoy) , 구약 역사, 8

강 창세기 2 장

1. 이것은 창조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인가?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토론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2장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이 창조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인가?” 였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질문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수업시간에 소개한 것 같아요 . 오늘 오후에 그 점을 다루겠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답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은 창조에 관한 또 다른 기록입니까? 나는 '예'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적절한 의미에서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2장이 창조에 관한 또 다른 기록이라는 점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 중 일부가 2장에서도 반복되는 것이 사실인데, 특히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교하고 확대되어 있지만 2장은 주로 창조 이야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2장의 강조가 인간과 창조된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와 기능에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를 제시하기 위해 2장은 창세기 1장의 작은 부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창세기 해설에서 SR Driver가

주장한 것처럼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8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1부터 2:4a까지와 2:4b-25에는 인간이 땅에서 기원한 것에 대한 이중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이고 비판적인 견해이다. 창세기 1:1-2:4a에서 2:4a의 두 장 사이의 구분을 주목하십시오. 2절 중간 사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사이 2:4b. 창세기 2:4b부터 25까지는 두 번째 창조 기사라고 합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이 쓴 이 두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P 계정”, 창세기 2장의 “J 계정” 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이중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 1. 창세기 2장에 대한

바노이의 접근 방식    내가 보기에는 창세기 2장을 두 번째 창조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장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장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즉, 1장에서 진행이 있습니다

. 2장, 3장으로 넘어가세요. “이것이 창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이는 단순히 또 다른 창작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 말씀 틀레도 - 장 구분 토론

그 질문에 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겠습니다.

개요 시트에서 로마 숫자 I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입니까?” 두 개의 하위 지점이 있습니다. A.

*톨레도트(toledoth)*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이제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여러분은 읽으시겠지만, 저는 킹제임스 성경의 다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영어 단어 “세대”는 히브리어 *톨레도(toledoth)* 를 번역한 것으로 , 아직 히브리어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영어 음역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세대( *톨레도트* )니라.” 이제 기억하신다면 제가 앞서 이것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2장 3절 끝에서 1장과 2장을 나누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즉, 개요를 보면 대문자 B가 창세기 2: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과 2a절은 창세기 1:1-2:3이었습니다.

구분점은 3절 끝 부분에 가장 잘 위치하며 이는 “이들은...

비판적인 학자들은 2:4a 이후로 거의 예외 없이 다르게 나눈다 . 즉, 그들은 4절의 첫 번째 절인 “하늘과 땅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4절 중간에 구분이 됩니다. 2장은 실제로 “땅이 생기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들의 모든 평지를 만드시던 날에 그것들이 창조되시던 날” 등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4절 중간에서 2장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다큐멘터리 가설에 기초하여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앞서 그 일반 이론을 논의했습니다. 그 비판적 관점에 따르면 핵심 문서인 P는 그러한 종류의 구조와 수, 특성을 선호하는 특징을 갖는 문서이며 실제로 창세기 전체의 도식적 구조는 “하늘의 세대들”이라는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땅” , “아담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 “노아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 “노아 아들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책 전체에 걸쳐 10가지가 있으며 책은 그 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평가들에 따르면 그것은 P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장은 P입니다. 그 문구는 P이므로 그 문구는 첫 번째 장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장의 요약인 첫 번째 장의 결론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2:4b 진술을 J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야훼(여호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2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창조를 받던 때에” . 주 하나님은 *야훼 엘로힘 이십니다* . 그래서 J 소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절의 두 번째 부분은 J여야 하고, 절의 첫 번째 부분은 P여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구절을 반으로 자르고 이 부분은 P 소스에 속하고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은 J 소스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은...의 세대들이니라” 라는 문구는 이 책 전체에 걸쳐 정기적으로 10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앞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내용을 소개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소개합니다 . 이는 비평가들이 하는 것처럼 2:4a의 문구를 결론적 진술로 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9개 위치 각각에서 해당 표현에 다른 의미, 다른 기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내용을 분명히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 데라 의 족보는 이러하니 ... 창세기 11:27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창세기를 알고 그것을 통해 생각합니다. 12장부터 시작하여 11장의 끝 부분에 있습니다. 12장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 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듣지 못합니다 . 당신이 들은 것은 데라 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 다음은 무엇입니까? 데라 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야곱이 가끔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야곱에 관한 것이 아니지만, 창세기 37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말하라. 요셉과 야곱의 후손들과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야곱에게

있지 않고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표현에서 *톨레도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세대 *입니다* ... 거기. 이는 ”(자녀)를 낳다” 또는 ” 낳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알라 드(yalad)*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의 명사 형태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은 산물, 즉 낳은 것을 가리킨다. 주로 어린이를 뜻하며 자손, 자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특정 사람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나 결과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즉, “천지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다루시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 질문과 관련하여 이 모든 것을 논의해 왔습니까? 창세기 2장은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즉 일종의 창세기 1장의 중복된 이야기입니까? 내 생각에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천지 창조가 반복되지 않고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서 나온 것이 암시된다는 것입니다. 요점 이 문구의 의미는 뒤가 아닌 앞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역사이며, 창조 시점부터 앞으로 진행된 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창세기 2

장이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그가 살았던 장소, 동물에 대한 그의 지배, 그의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여자의 창조 등이 3장의 길을 준비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장부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톨레도*는 처음부터 끝점까지의 역사적 선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제품, 결과를 가리킨다. 속격은 “This are the Generations of…” 을 얻을 때 속격은 시작점을 나타내고, *톨레도스*는 *결과* 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제 NIV를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시나요? 나는 그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의 역사는 이러하니…하늘과 땅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킹제임스 성경 이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이 자손을 낳는다는 의미에서 세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오는 것 ” 또는 “나오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 NIV가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는 일인 “the account of” 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거의 왜곡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과 같다” 는 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창세기 2장 4 절과 관련하여 뭔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그것이 다소 모호할지라도 “이들은… 다른 문구를 사용하더라도 앞으로 나올 것이 족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개인에게서 무엇이 나오나요? 이는 일종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구조에서 그 문구를 표시합니다. 창세기 25:12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것”은 일종의 족보이지만, 그것은 막다른 골목이고 멈추며 영원히 추적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는 창세기 25장 이후의 이삭과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다음은 야곱이 27장에서 이삭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라반에게 아내와 아들들을 구하라고 간청합니다. 25:19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용어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기 질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의 질문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창조 이야기의 중복 반복입니까? 그 표현을 보면 “아니오”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발전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B. 창세기 3장과 관련하여 창세기 2장의 기능은 무엇인가? 1. 창세기 2장은 타락에 대한 기록을 준비하면서 인간에게 관심을 집중시킨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B. “창세기 3장과 관련하여 창세기 2장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나는 2장의 기능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타락과 죄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과 관련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 창세기 2:8-14에는  
 동산의 위치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심으셨다고 언급한 후 10절에서 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1-14절에서는  
 동산의 위치와 관련된 네 강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8-14절에는 동산의  
 위치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3장에서 가을이 일어나는  
 장소는 정원이다. 또한 16절과 17절에는 에덴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 금지는 3장과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장에는 그  
 길을 준비하는 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18-24절에 있는 여자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3장에서 하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보다 더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도 3장과 연결되어 필요한데, 그 이유는 25절에서 남자와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3장 7절과 관련하여 중요하며, 타락한 직후에 “저희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뿌리고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등이 있었습니다. 2장과 3장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은 3장에서 이어지는 많은 내용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1장 과 창조 기록이 중복됩니다. 진행이 있고 3장 아래에서 2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2. 창세기 2장은 창세기 3장과 모순되니까?      좋습니다. 창세기 2장의 두 번째 숫자는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과 모순되니까?” 입니다. 일부 비평 학자들과 심지어 어느 정도 비판 이론을 받아들이는 일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 두 장이 모순적이라고 말하는 진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원적인 비판 이론과 그것이 성경을 다루는 방식은 그런 종류의 이론의 맥락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경에 대해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 책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역사서가 있는 것입니다. 모순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장되는 바는 창세기 1장의 사건 순서가 창세기 2장의 사건 순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식물을 나게 하라 하시니라” 에서 창조된 식물이 있습니다 . 24절에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소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6절과 27절에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창조 계정에 올 때 이론은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 두 번째는 초목입니다. 8-9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사람을 두시고” . 동물은 세 번째입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모든 들짐승을 지으시니라” 마지막으로 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남자로 여자를 만드시고” .

이제 그걸로 무엇을 할까요? 정말 순서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 실제 불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창세기 2장에는 초목의 창조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묘사된 것은 동산을 심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기 식물 생성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물의 생성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가정입니다. 둘째, 문맥과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하여, 8절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동사 형태의 모호성을 초래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NIV를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께서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께서 동산을 가꾸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NIV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고 말합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영어에서처럼 과거 시제와 완료 시제 동사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차이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황과 상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두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실 것 같아서 동산에 두시려고 먼저 동산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었다”보다는 “심었다”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서는 NIV가 정확하고 그 당시에는 더 나은 영어 번역을 제안한다고 생각합니다.

3. 창세기 2장 19절은 동물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 후에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창세기 2장 19절은 동물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 후에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2장 8절의 동사형의 시제와 동일한 문제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질서의 불일치에 대한 이러한 생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모든 들짐승을 지으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NIV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들짐승을 다 지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다시 한 번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남자 후에 여자 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읽은 것처럼 동물은 더 일찍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아담이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이 19-24절에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분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창세기 2장에서도 동물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불일치 주장에 대한 의견을 통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창세기 2장의 강조점이 연대순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서는 반드시 연대순이 아닌 진행의 논리를 반영합니다. 2장과 1장 사이에 말하려는 내용 사이에는 필연적인 충돌이 없습니다. 동사 형태를 번역하는 방식, 특히 2장 19절과 2장 8절의 “심었더니”와 “형성되었느니라”의 동사형을 번역하는 방식 과거형인지 과거완료인지는 전적으로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 그러한 동사 형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요소는 두 장 사이의

모순을 보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불일치를 찾고 있다면 불일치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조화를 찾고 있다면 그것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법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문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한 평론가가 말했듯이, 비록 당신이 다큐멘터리 이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두 창조 이야기를 함께 정리한 사람이 여전히 그 둘 사이의 모순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것을 조화시키기 위해 편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신? Leupold, 내 생각에 이것은 참고문헌 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Leupold 는 자신의 논평 108페이지에서 다른 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저자가 그렇게 바보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창조에 관한 두 개의 독점적인 기록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6절과 창세기 1장 2절의

병행 기록론을 문제 없이 받아들였다고 해도 누군가는 왜 그렇게 했겠는가? 두 장 사이에는 필연적인 충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 나는 Derek Kidner 의 제안을 따르겠습니다 . Tyndale Bulletin, 1966년 제목은 “창세기 2:5-6, 젖음 또는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구절들이 창조 물질의 질서를 정돈하는 과정 이전의 창조의 혼란스러운 상태인 창세기 1장 2절과 실제로 병행하다고

결론짓는 구절들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라는 단순한 문구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하는 4b절이 이중으로 확장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조의 이 시작 단계에서 독자는 5절의 부정적인 “아직, 아직, 아무것도”에 첫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알려진 세계에서 시작하여 익숙한 특징을 제거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전제에서 마음을 비우고 독자는 이제 6절에서 세상의 어떤 장면이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다른 용어로 제시된 장면입니다. 광대 한 물 . 비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뭄의 징후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둘째 날 물이 갈라지기 전의 포화 상태를 나타냅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에 관한 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5-6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라는 맥락에서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구상에는 야생 식물도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재배된 작물만 존재했습니다. 구름과 비로 친숙한 하늘조차 아직 증거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온 땅은 연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 3. 에덴동산

a. 지리적 위치 번호 3은 “에덴동산”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하위 요점이 있습니다. 1. “지리적 위치”입니다. 에덴동산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미 언급했듯이 2장에서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이 꽤 나온다. 8-14절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절에서 14절에서 동산과 연결된 강에 대해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라져 네 개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 이다 . 이는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두른 곳이니라. 그 땅의 금은 좋고 마노도 있습니다. 둘째 강은 기혼입니다. 구스 땅을 둘러싼 것과 동일합니다. 셋째 강은 티그리스인데 “시리아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 입니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입니다. 창세기 2:10에서 강은 에덴에서 발원하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발원하였습니까? 나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머리가 되었느니라.” 이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거기에서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강이 기능하는 방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델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한. 강이 모이는 일반적인 방법은 반대입니다.



강들이 모여서 더 큰 강을 이루는 곳. 앵커 성경 창세기 14, 17, 19, 20 페이지의 에프라임 스파이저(Ephraim Speiser)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정원의 물.” 나일강이 강물처럼 제방을 넘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외부에는 4개의 별도의 가지 침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번역을 효과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확인입니다.

14절에서 마지막 언급은 유브라테 강이다. 우리는 강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지중해, 홍해, 군대가 이곳으로 올라옵니다. 여기는 페르시아만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두 강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나머지 두 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 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이 있었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사실 위치에 대한 기본 접근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류 최초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시의 지리가 홍수 이전 시대에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기혼 강, 비손 강 은 페르시아 만 지역 어딘가에서 합쳐지는 네 개의 주요 강이었습니다. 비손 과 기혼 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동산에서 강들이 물을 공급했던 지역이 현재 페르시아만의 북쪽 부분 아래에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땅을 덮고 있는 확장된 지역이고, 에덴동산은 그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갔더라” 라고 흔히 언급되는 이 논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늦 땅은 에덴의 동쪽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열왕기하 19장 12절과 비교하고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열방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였느냐.. 델아살에 있던 에덴 족속이 그들을 구원하였느냐” , 곧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를 읽습니다. 에덴의 자손들은 델아사르에 있었느니라.” 그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때로는 그것과 관련된 참고 자료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가능성은 그것이 페르시아 만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홍수 이전의 세 강의 이름이 홍수 이후에 기억되어 다른 강의 이름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에덴동산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홍수 이후에 전달되어 어떤 강에도 명명될 수 있는 강에 적용되는 단순한 이름일 뿐, 홍수 후 구성이 변경되었을 수 있는 동일한 강일 필요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위치는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될 위치입니다. 즉, 에덴동산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역사적 근거도 없고 현실도 없는 일종의 종교적 환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에덴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참고문헌에 있는 JC Gibson, The Daily Study Bible 시리즈, Westminster, 1981에 있는 이 작은 책을 통해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인기 있는 시리즈이고 평신도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대 시리즈입니다. 많은 교회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100페이지에서 에덴동산의 위치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상상력을 가지고 에덴동산 이야기에 접근한다면 내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의 이전 단락은 신데렐라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슷하게 제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토기장이이자 땅 주인인 하나님에 대한 순진한 그림, 놀라운 선물을 추론하는 마법의 열매인 나무, 말하는 뱀, 수호 천사, 정원 그 자체... 이 모든 것이 이야기 속의 가구입니다. 그것들은 근본적인 의미의 일부가 아닙니다. 에덴동산 같은 곳은 결코 없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살면서 히브리어로 뱀과 신과 대화한 아담이라는 역사적 인물도 없었습니다. 정원은 마음의 정원이다. 남자들의 꿈의 정원이다. 그들이 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곳, 실제로 그들은 이 세상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우리 각자이며 모든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과 같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죄 많은 아담인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천국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금지된 열매를 먹고 그 열매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접근 방식은 에덴동산과 같은 곳은 결코 없었고, 아담과 같은 사람도 결코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미가 있는 이야기일 뿐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구약의 역사 서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해주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지리적 위치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는: “정원의 나무들” 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Nina Gundrum 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